

제주 택시운전사 5명중 1명 '65세 이상'

65세 이상 운전사 비율 2014년 11%→ 올해 23% 최근 5년간 발생 택시 교통사고 중 15%가 고령자

제주 택시운전사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제주도내 택시운수 종사자는 5318명(개인 3705명·법인 161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사는 1200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사 비율은

2010년 5.3%에 불과했지만 2014년 10.8%, 올해는 20%를 넘어선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에서 발생한 택시 교통사고는 2014년 406건(사망 5명), 2015년 372건(사망 4명), 2016년 353건(사망 7명), 2017년 322건(사망 1명),

2018년 302건(사망 6명)으로 최근 5년간 1755건이 발생, 23명이 숨졌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사가 사고를 낸 경우는 14.9%(262건)로 51~60세 44.8%(787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실제 지난 4월 9일 오후 11시23분쯤 제주시 이도2동 중앙여고 교차로에서 A(65)씨가 몰던 택시가 길을 건너던 행인(53)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일반 운전자와는 달리 택시나 버스 등 생계

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검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납부 지원 제도를 시행, 한달 만에 157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6년 467건, 2017년 529건, 지난해 517건 등 1513건이 발생해 39명이 숨지고 2224명이 부상을 입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제2공항 강행 중단, 대통령 결단하라"

반대단체 청와대 앞 회견 "답변할때까지 투쟁 전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설립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2005년 500만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만에 1500만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 대상이 돼 섬 곳곳이 명들었다"며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며,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고 있

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가 추진해 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전략환경영향평가 철저 검토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보장 ▷제2공항 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의견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상습 방화 30대여 검거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수차례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휴지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잠복중이던 경찰은 15일 오후 8시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터미널 관계자가 두번째까지는 피해가 미미해 신고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세번째 방화가 발생하자 신고했다"며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옛 제주 속으로... 성음민속마을을 관광 희망한 가을날씨를 보인 16일 서귀포시 표현면 성음민속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제주전통 옛 초가 터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규기자

명상수련원서 50대 숨진채 발견

유족 "9월부터 연락 안돼" 경찰 수사 착수... 부검 계획

제주에 명상수련 하러 온 5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에서 A(57)씨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0일 해당 명상수련원에서 수련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 9월 1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한달 이상 연락이 닿

질 않자 A씨의 부인은 지난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출동 결과 A씨는 명상수련원 모기장 안에서 부패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명상수련원 관계자는 "A씨가 혼자 수련하다 사망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상 등 범죄 혐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명상수련원 관계자를 상대로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장 불법 비일비재

도, 상반기 25곳 조사... 법규위반 67건 적발 근로기준법 위반 최대... 허가취소 등 엄정조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주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 결과 1곳당 평균 2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내 사업장 25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총 67건의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19건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타법령 위반 22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법령 위반 8건 ▷최저임금법 6건 ▷산업안전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최저임금 고시 의무를 위반하고,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12건에 대해 시정지시했으며 경찰청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에 55건을 통보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19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농축산업과 어업 등 취약업종과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이다. 제주도는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센터와 합동으로 고용 및 체류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지속적인 고용관리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등 각종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장이 적발되면 사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외국인고용허가 취소·제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을 보면 8월말 기준 도내 사업장 1502곳에서 339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라민우 녹취록 보도 '유죄' 항소심 "1심 판결 정당"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라민우 게이트' 의혹이 담긴 불법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반면 이를 보도한 언론인의 항소는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제주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A(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구속된 이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로 감형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사무실 쇼파 밑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라민우 전 제주도 정무기획보좌관과 사업가 B씨가 말하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했다. 이후 지난해 5월 12일 A씨에게 기자회견을 취지로 해당 녹취파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의 언론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고 해당 녹음 파일을 기사에 첨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진정한 휴식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앵배추브로컬리 무우 앵배추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앵배추브로컬리 앵파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자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우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늘

- 소독: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